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3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 행동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민족 (에 8:1-17)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는 폭포수와 같습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와 사랑은 유대백성들을 간신히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는 유대백성들의 구원을 요청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에 더하여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 전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에스더에게 돌아갔고 모르드개가 그것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1절)

이제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개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는 벌써 8년이 지났고, 모르드개는 상당한 고위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모르드개와 왕후의 관계를 왕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자신의 출세나 축재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이런 사실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127도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는 그간 신하들과 지방관들의 비리를 수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반지를 빼서 모르드개에게 줍니다. 모르드개는 하만의 자리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인정과 신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실함과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만이 내렸던 왕의 조서는 아직도 효력이 살아있어서 12월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만이 남긴 악의 씨를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그 누구도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공식 조서를 전국에 반포했기 때문에, 하만은 죽었지만 그 악의 씨앗은 여전히 살아있어 이제 아달월 제 13일이 되면 유대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에 에스더는 다시 한 번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3절). 유대 민족을 살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받은 개인적인 축복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청을 들어주어 다시금 조서를 반포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16절).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은 이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본 페르시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어 유대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1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스더와 모르드개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 복음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The People with Glory, Joy, and Nobility (Esth. 8:1-17)

Our God's love is just like a waterfall that never dries. God's inscrutable grace and love that was given to Esther didn't narrowly save the Jewish people. Although Esther only asked God to save the Jewish people instead, God gave her the whole house of Haman as a gift. Haman was a very rich man in Persia, but his wealth went to Esther, and Mordecai managed her estate. "For Esther had told how Mordecai was related to her" (v.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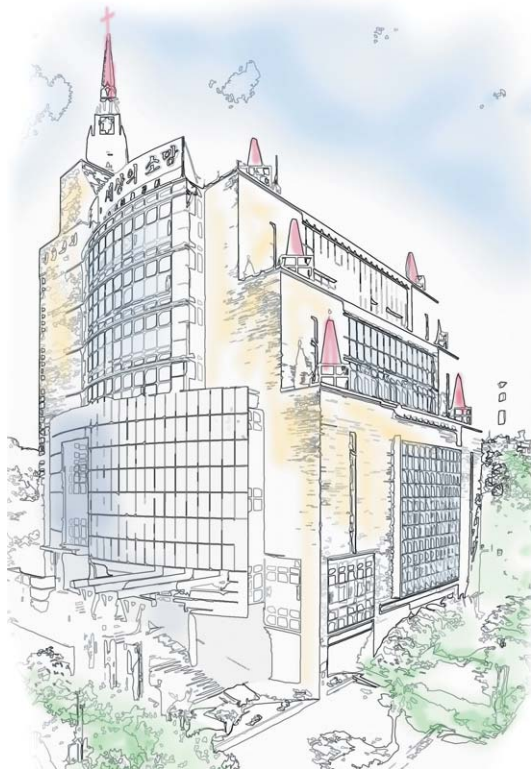
Now, Esther formally introduced Mordecai to the King. It passed eight years since Esther had become queen. Despite Mordecai was a good senior officer, the fact that the King did not know the relation between Queen Esther and Mordecai meant that Mordecai did not take advantage of Esther for his own successful career.

King Xerxes was moved by this fact very much. Meanwhile, he would innumerable have seen the corruption of his lieges and nobles as the King who ruled 127 provinces. The King, on the spot, took off his signet ring and presented it to Mordecai. Mordecai not only took Haman's position but also received much higher recognition and respect. Such sincerity, honesty, and confidence can be gained by the world as well as by God.

Nevertheless, because the King's agreement with Haman was unfortunately effective, all of the Jews would have been slaughtered in the coming December. It was not easy for them to nip an evil in the bud that Haman left. Because the official decree that was sealed with King's signet ring and no one could change the content, even though Haman was dead, the evil in the bud was still alive. Now, all the Jews might have been dead, on the thirteen day of the month of Adar.

Esther again pleaded with the King (v. 3). She thought that it was not meaningful for her to be privately blessed until the Jewish people would be alive. The King replied to queen Esther and Mordecai petition and again proclaimed the decree. "For the Jews it was a time of happiness and joy, gladness and honor" (v. 16).

The Jews who were full of sorrow and dread became to enjoy glory, joy, and nobility. Furthermore, Persian people who saw such a situation were afraid of the Jews who believed in God became to believe God and wanted to become the Jews (v. 17).



My beloved Christians!

We, just like Esther and Mordecai, we must believe God and are not only recognized by Him but also send forth Christ's fragrance to the world. By playing a role of a letter of the Gospel as best you can,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 제12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

## -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우리교회 제12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가 다음 주일(5월5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개최된다. 또한 5월 19일(주) 서울교회 제12대 장로, 제13대 안수집사, 제12대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된다. 한편 당회가 직접 공동의회에 후보를 제출하는 안수집사, 권사와는 달리 장로의 경우에는 제직회에서 공동의회에 제출할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제직회에 제출되는 장로후보에 대하여 당회는 그동안 기존 안수집사와 권사 전원을 후보로 제출하여 왔으나 안수집사와 권사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3일 정기당회를 통하여 올해부터는 제직회에 안

수집사와 권사별로 당해년도 장로선출예정인원의 각 10배수만 제출하기로 하면서 그 후보선출을 해당 자치조직인 스테반회와 제1,2권사회에 위임하기로 하여 안수집사, 권사별로 기수별, 연령순에 따라 제직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지난 4월 13일(토) 스테반회는 월례회에서 후보를, 4월 24일(수)에는 권사회가 후보를 선출하였다.

서울교회 제직(담임목사, 부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무임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 서리집사)들은 한 주 동안 주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주기 바란다.

## 2013년 4월 학습·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4월 21일 주일 1,2,3부 예배 시 2013년 두번째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주일 1,2,3부 예배 시에 학습·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학습·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7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례준비반 인터넷 카페(서울교회 홈페이지⇒e공동체⇒세례준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세례 / 입교 / 학습 / 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b>&lt;세례자&gt;</b>	김연경3 김주경1 박광용 우선영 윤미원 이구근 이상철2 이상현3 이아영2 이은미4 이현수2 임선택 최규리 최은영8	계 14명
<b>&lt;입교자&gt;</b>	손신영 엄하현 이근원 이정연2	계 4명
<b>&lt;개종자&gt;</b>	김종진 이경은3	계 2명
<b>&lt;학습자&gt;</b>	김 욱 김덕례 김미정6 김우형 김종구1 김종엽1 라민상 백승만 송은정 송준성 신영희2 이성례 이수연 이호선1 장영희 전연숙 정임숙 지선희 최명규 최제호 최현화 홍정원2 황두물	계 23명
<b>&lt;유아세례자&gt;</b>	김규환1 박승하 백시현 심재하 정은율	계 5명 총 48명



2013년 4월 학습·세례식 거행 장면



지난 주 찬양예배시간에 장애인주일을 맞아서 사랑부(부장: 강성은 집사)와 에바디부(부장: 안인호 집사)의 특별찬양을 드렸다.

- ① 사랑부의 정성을 다한 특별찬양
- ②, ③ 에바디부의 온혜로운 수화찬양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85]

(문 84) 삼상 13:13에서 사울이 유다 족속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뻔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답) 사울은 삼상 13:13에서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 사무엘로부터 무서운 선고를 받았습니.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된 마지막 부분의 말씀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어야 함을 말한 것일 뿐 하나님의 명령이나 약속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면 그와 그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관을 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멜렉을 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삼상 15장) 그리고 길갈에서 제사장의 특권인 제물 바치는 일을 사울이 시행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족속인 다윗에 의해 대지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야곱이 죽는 시간에 12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기도 속에서 유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 49:10) 즉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다윗과 그 후손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권은 유다 족속인 다윗의 집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과 배교 행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상 13:13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 왕권이 끊어질 것을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어늘"이라 한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 2013년 장한 어머니상 시상 4월 30일(화)까지 신청

우리교회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책으로 부모가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성도로서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가정의 어머니(출산일: 2012년 5월 1일부터~2013년 4월 30일)를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고 셋째 또는 넷째 아이의 장학금 통장을 5월 12일에 시상한다. 해당되는 어머니는 4월 30일까지 교구지도목사에게 신청바란다.

천국시민양성 - 젊은이예배

# 세상을 변화 시키는 공동체



오세광 목사  
(청년담당 교역자)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교육부서가 자체예배를 준비하여 드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한 분기를 보내면서 우리 서울교회 젊은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참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후 1:30 웨스트민스터홀에서 드리는 "젊은이 예배"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섬김의 영역에 청년1,2,3부의 모든 지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 헌금 위원,

멀티미디어, 찬양팀, 찬양대, 새가족 섬김, 편집팀 그리고 도고 기도팀, 이 모든 예배팀들의 봉사자들은 모두 청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문화적 코드와 감성에 맞는 찬양, 그들의 영성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 그리고 뜨거운 기도가 젊은이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습니다. 예배 뿐 아니라, 예배 후에 자연스럽게 부서 모임과 다락방 모임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교회 젊은이 공동체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 예배가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품게 하신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교회 젊은이들이 비단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도전해야겠다는 꿈입니다. 그래서 서울교회 젊은이 공동체에 주신 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이 비전을 성취하고 젊은이 예배가 더욱 더 부흥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말씀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4월 첫 주부터 청년들을 위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주중, 주말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젊은이 예배는 계속해서 성장하겠습니다. 다음세대의 첫 주자로서 손색없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젊은이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젊은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교보고 - 우크라이나

# 새로운 사역의 시작!

홍남기 · 김인규 선교사(우크라이나)

주님 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정말 긴긴 겨울을 보내고 이제야 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봄을 맞이해서 우크라이나는 아주 긴 연휴를 갖습니다. 여름 3개월이 있지만 그 전에 5월 1일부터 길게는 13일까지 긴 휴일을 보냅니다. 그 때문에 토요일에 하지 않던 수도도 하고 근무도 합니다. 폭 쉬고 다시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크라이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생활

지난 3월 22일 키예프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평균 성인 남자 허벅지만큼 쌓였고 3일 내내 심한 눈보라가 몰아쳐 모두들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0년 만의 한파였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고와 길에 큰 구멍들이 생겨서 지금도 운전자들이 힘들어 합니다. 거주등록은 은혜가운데 잘 해결되었습니다. 작년과 또 다른 법이 생겨서 그것을 맞추느라 힘들었지



토요일 오후 우크라이나 젊은이들과 함께 한 친교시간

만 그래도 감사하게 1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 새로운 선교 사역 시작

현지 학교 한국어 사역은 '한국어과'로 정식 수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개설되었다가 교사의 잦은 변동으로 폐강하였다가 저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2학년을 시작으로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실을 배정받았고 현재 수리 중입니다. 다만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자재가 없는 상황이라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태권도 사역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의 방과후 수업이 될 예정이고 지금 하고 있는 태권도 사역도 좀 더 변경될 예정입니다.

세번째는 역시 한국어 사역인데 이것은 키예프 국립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사역입니다. 정식 교수로 임명될 예정이고 이미 시작한 다른 선교사와 연합 선교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중 일부를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토요일에 약 25명이 모여서 찬양과 말씀, 성경공부 그리고 친



외국어대학교 총장과 성결교성결대학교팀과의 만남

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동참하면서 이 학생들이 한국에 머물 때에 해당 학교 관계자들과 이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도와 줄 교회를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신앙으로 훈련되고 한국에 머물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더 귀한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 3. 기도제목

- 1) 아내와 함께 시작하는 현지 학교 한국어과 수업을 위해
- 2) 태권도 사역의 구체화
- 3) 키예프 국립 외국어 대학교 교수 사역과 함께 공부하고 예배하는 학생들을 위해
- 4)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교회의 연결을 위해
- 5) 은성이의 눈 치료를 위해



현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시간

유아세례를 받고

# 승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승현 집사 (5교구)



승하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첫째 동하 때와는 달리 둘째라는 핑계로 승하의 유아세례를 위해 기도도 잘 준비하지 못한 점, 그리고 계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령으로 이끄시어 은혜 가운데 승하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승하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얼마나 승하를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강하고 깊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험한 소문들과 어렵고 힘든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이 꼭 안아 지켜주시고, 행여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며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부모의 부족함과 잘못된 습관들은 배우지 않도록 먼저 저희 부모가 더 주님을 닮도록 하여 주시고 늘 기도도 양육하는 기도의 부모가 되게 하여주세요. 그리고 승하가 늘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 남들에게 더 나누길 노력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 돌보길 더 노력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갖지 못한 것들을 보기보다 이미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주세요.

유아세례를 받은 승하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 가정에 부여 주신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며 이끄실 승하의 삶을 기대합니다. 또

맡겨주신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인내와 절제를 저희 부부에게 더해 주시고 항상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승하에게 주신 주님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도 더해주세요. 세상의 혼란 부모가 되지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바라보며 승하를 양육해 나갈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유아세례를 통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대합니다. 승하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저희에게 보내시고 맡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일3부예배(임마누엘 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임명



김현정 선생

우리교회 당회는 그동안 주일3부예배(임마누엘 찬양대) 오르가니스트로 수고하던 김여정선생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고 후임으로 김현정 선생을 임명하였다.

김현정 선생은 침례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졸업, 웨스트민스터음악대학 오르간석사, 맨하탄음악대학 오르간연주자과정 졸업, 뉴저지주립대학 오르간 박사과정 휴학중에 있다

나의 하나님

# 주님! 이 죄인이 묻습니다



이수원 성도 (마가다락부)

제가 세상 죄에 파묻혀 악마 같은 술에 나의 영혼을 팔고 낮에는 동에서 구걸하고 밤에는 경찰서에서 걸주하여 영혼없는 시신 같이 던져진 채 잠이 든 추한 나의 모습과 들녘에 홀로 선 허수아비 같이 절망에 갇혀 있던 내가 모든 문제는 내 탓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네 탓이라고 증오했던 나.

너무나 부끄러워 눈물이 흘러 내립니다. 메마른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립니다. 온갖 죄악에 물들어 독한 욕설만 뱉던 입술이 너무나 더러워 다시 흘러 내립니다. 자꾸자꾸 흐르는 눈물 때문에 기도문을 쓸 수가 없고 흐르는 눈물은 통곡으로 바뀌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마취도 없이 살을 뜯어내는 고통과 뼈를 갈아 내

고 또 다시 갈아내고 그 뼈를 잘라내고 잘려나간 다리의 뼈를 구두 발로 짓이겨 대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억울하게 당했던 분노에도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던 이 눈에서 왜 눈물이 그치지 않을까요?

주님! 이 죄인이 묻습니다.

왜 나를 그냥 두지 않고 서울교회 마가다락부 집사님을 보내셔서 부르셨나요? 왜 겸손과 사랑과 감사가 총만하고 맑고 아름다운 성품의 마가다락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나요?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셨나요? 이대로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록에 적혀 있는 죄인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나요?

주님! 이 죄인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지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심이 믿어지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이 죄인 한 마디만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라고...

동정

- 수상 : 박은영1 성도(5교구) 4월 19일 제33회 장애인인날 기념 영등포구청장 표창  
김윤수 성도(6교구) 4월 23일(화) 2013년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 주간식당봉사: 제1권사회(4.28) 제2권사회(5.5)
- 금주의 식사: 김시영 집사 · 선혜영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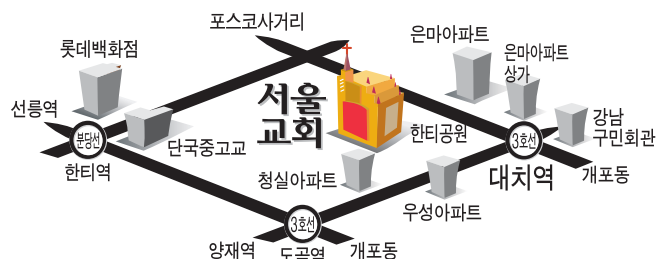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3년 장로/권사/집사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 되도록
2. 중간고사를 보는 자녀들이 먼저 성수주일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3. 우리교회 각부서별 다음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부흥의 기쁨을 맛보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부예배	오전 9시
	II부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I부예배	오전 11시
	II부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층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본당 II층

■ 교회오시는길



■ 서울교회QR코드

